

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
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.

오렌지 카운티 전지역!

주택 / 아파트 / 상가 / 사업체 전문

REALTOR **데이빗 전**

(714)309-2355

오픈특가 \$7.00/LB

aci store

한국택배 / 24H 메일박스 오픈 (부에나팍 사거리)

*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 / 항공·해운 물류서비스
*전자상거래-배대지-3자물류대행-한국역직구대행-전세계택배
*개인소화물-귀국이사-미국내화물/이삿짐운송-수입수출통관

T.714.735.9277 www.aciexpress.net
www.shippingtohome.com



갈갈 웃음



[행운을 축하하세요]

“저기 선생님, 꽃 한 다발 사서 사모님한테 갖다드려 보세요.” 길거리 꽃장수가 지나가는 남자에게 꽃다발을 내밀었다.

하지만 남자는 “저 마누라 없어요!” 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.

꽃장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.
“그럼 한 다발 사서 애인한테 갖다 주시지 그래요.”
“전 애인도 없어요.”

그러자 꽃장수는 더 적극적으로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.
“아, 그렇다면 두어 다발 사 갖고 가서 당신의 행운을 자축하시는 건 어때요!”

[채운계]

요즘은 디지털 채운계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막대 모양의 채운계를 사용했다.
그 시절, 한 남자가 열이 심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. 간호사가 오더니 채운계를 입에 물렸다. 한참 후 간호사가 채운계를 체크하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따라 나서며 간호사에게 물었다.
“방금 입에 물린 채운계 값이 얼마입니까?”
“아니, 왜요?”

남편이 대답했다.
“하나 사려고요. 그 채운계가 지금까지 아내의 입을 제일 오래 다물게 했습니다.”

[아이고 헛갈려]

술집에 들른 달수가 웨이터를 불렀다.
“여기 와인 한 잔.”

잠시 후,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오자, 달수는 생각이 바뀐 듯 정중하게 말했다.
“미안하지만 이걸 위스키로 바꿔주세요.”

웨이터는 시키는 대로 위스키를 가져왔다. 달수는 그 위스키를 단숨에 쪽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파람을 불며 술집을 나갔다. 깜짝 놀란 웨이터가 얼른 뒤쫓아가 달수를 붙잡고 물었다.
“손님, 위스키 값을 내지 않았는데요.”
“하지만 그건 와인 대신 마신 거잖아요.”
“네, 그렇지만 와인 값도 안 내셨잖아요.”
“그야 당연하지. 와인은 마시지도 않았는데?”

웨이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달수에게 돈을 건네주며 말했다.
“아차! 그럼 제가 손님께 와인 값을 돌려드려야 맞지요?”

[요즘 아이]

옆집에 사는 네 살짜리 꼬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. 나는 우리 집의 애완동물인 거북이를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다.
그러나 거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. 거북이의 등을 살짝 두드려 보았지만 거북이는 껍데기 밖으로 나오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.
그러자 그 꼬마가 물었다.

“배터리가 다된 거 아녜요?”

[정치인의 실체]

식료품 가게 주인과 은행가 그리고 정치가 세 사람이 시골을 여행하다 숲에서 길을 잃었다.

얼마 후 세 사람은 한 농가를 발견하고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.
“ 좋습니다! 하지만 우리 집엔 두 분이 주무실 방밖에 없어요. 그러니 한 분은 마구간에서 가축들과 같이 주무셔야 되겠는데요.”

“내가 마구간에서 자죠.”
은행가가 자원하고 나섰다.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노크 소리가 나 문을 열어 보니 은행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.
“난 도저히 그 냄새를 못 맡겠어요.”

“좋아요. 그럼 내가 거기서 자죠.”
이번에는 식료품 가게 주인이 나섰다.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돌아왔다.
“난 식품이 썩는 냄새를 맡으며 살아왔지만 저놈의 마구간 냄새는 정말 못 참겠어요.”

그러자 정치가가 나섰다.
“이런 양반들 보게. 내가 마구간에서 자리다.”
30분 후에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. 두 사람이 나가 보니 마구간에 있던 짐승들이 죄다 나와 문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.

**주택 상가 리모델링
하우스 에디션 페인트**

- 부엌, 화장실, 마루
- 창문, 덱, 페티오
- 페인트 (In/Out)
- 플러밍, 전기
- 루핑, 타일
- 우드 펜스

119 Construction
Lic #1058593
(714) 525-5600
119 S. Gilbert St.
Fullerton, CA 92833

Candice K. Kim (김경아)
714-373-6883
7645 Garden Grove Blvd
Garden Grove CA 92841

CA Insurance Agent #: 0B30329

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

Allstate
You're in good hands.

© 2019 Allstate Insurance Co. 9772519